

2022(사)한국연기예술학회

춘계학술대회 & 연구윤리세미나

일시 _ 2022년 6월 18일(토) PM2:00
장소 _ ZOOM

춘계학술대회

<배우를 위한 촬영기법 연구>

연구윤리세미나

<연구윤리 위반 사례와 논문작성법>

ZOOM
2022.06.18. (토)
PM. 2:00

(사)한국연기예술학회 춘계학술대회
<배우를 위한 촬영기법 연구>

일정	식순	
14:00 ~14:10	입장 및 개회사	
	좌장 _ 진승현(호서대학교 교수)	
14:10 ~14:30	연구윤리 세미나 _ 김종두(서원대 교수) <연구윤리 위반 사례와 논문작성법>	
14:30 ~ 15:10	발제 1 _ 윤장호(대진대 교수) <카메라 렌즈의 특성을 고려한 배우 동선연구>	토론 _ 이영란 (경희대 교수)
15:10 ~15:50	발제 2 _ 구상범(한국영상대 교수) <감독 관점에서 본 촬영기법 및 배우와 연기>	토론 _ 김윤식 (동서울대 교수)
15:50 ~ 16:20	종합토론	
16:20 ~16:40	폐회 및 기념촬영	

카메라 렌즈의 특성을 고려한 배우 동선연구

윤장호
대진대학교

발제문

카메라렌즈의 특성을 고려한 배우 동선연구

1. 서론

무대 연기와 비교하여 카메라 연기에서 주요 특징은 매체가 지닌 고유한 특성이 있으며 배우는 이에 대해 이해하고 적절하게 고려하여 연기한다면 배우의 동작과 감정은 정확하고 깊이 있게 관객과 소통이 이루어 질 것이다. 특히 카메라의 렌즈는 인간의 눈과 유사한 부분이 있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렌즈만이 가진 독특한 특성이 존재하며 이를 통해 바라보게 되는 사물의 모습은 다양한 시각언어로 관객들에게 전달되게 된다.

2. 본론

1

렌즈의 구조

2

렌즈의 원근법

3

렌즈의 피사계심도

2

렌즈의 구조



조리개 : 렌즈 속에 있으면서 구멍의 크기(면적)를 달리하여 필름으로 가는 광량을 조절해 주는 역할을 한다.

거리(포커스) 조절 링 : 피사체의 거리에 따라 초점을 조절할 수 있도록 미터(m)와 피트(ft)등으로 거리가 표시되어 있다. AF에서는 수동으로 포커스 링을 자주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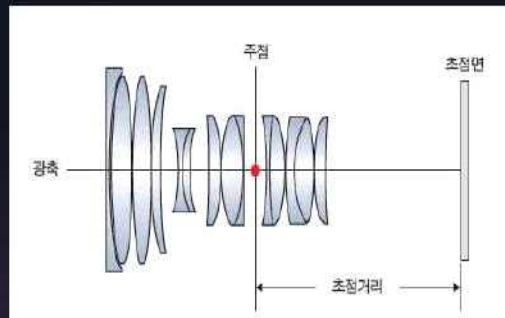
줌 조절링 : 줌렌즈에만 있으며 화각을 바꿔 준다.

3

렌즈의 구조

초점거리

초점 거리는 초점을 조절하는 포커스 링을 무한대에 놓고 렌즈의 중심(주점)에서부터 초점이 맞는 초점면까지의 거리를 렌즈 초점 거리라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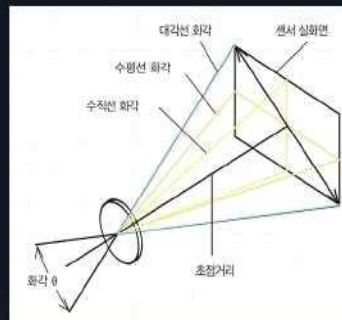


4

렌즈의 구조

초점거리

렌즈 초점 거리는 보통 밀리미터(mm)로 표시되는데 초점 거리에 따라 여러 가지 규격의 렌즈로 구분된다. 즉 8mm, 25mm, 35mm, 50mm, 75mm, 100mm, 500mm 등 다양한 초점 거리를 가진 여러 가지 렌즈가 있다.



5

렌즈의 구조

초점거리

피사체와 카메라의 거리가 일정하다고 가정하면 50mm 렌즈에 비해 100mm 렌즈는 피사체를 2배로 크게 기록하며 200mm 렌즈는 4배로 피사체를 기록하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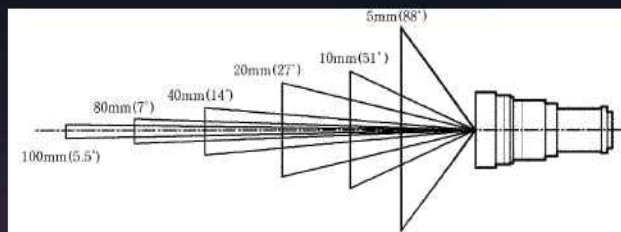


6

렌즈의 구조

화각

- * 렌즈의 초점거리가 2배 또는 1/2배로 변화함에 따라 화각도 2배로 변화한다
- * 화각은 초점거리에 따라 달라진다.
- * 망원렌즈는 표준렌즈에 비해 좁은 화각을 가지며, 광각렌즈는 표준렌즈에 비해 넓은 화각을 갖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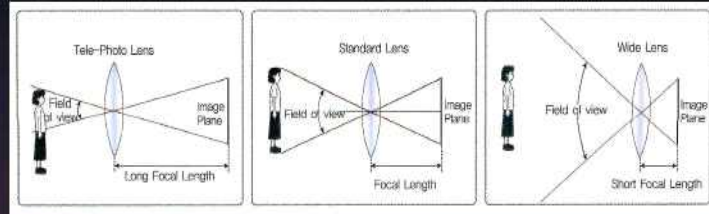


7

렌즈의 구조

화각

- * 화각은 화면을 구성하는 각도로 피사체가 찍히는 범위를 각도로 표현한 것이다.
- * 화각은 초점거리에 따라 달라진다.
 - 망원렌즈는 표준렌즈에 비해 좁은 화각을 갖는다.
 - 광각렌즈는 표준렌즈에 비해 넓은 화각을 갖는다.



8

렌즈의 구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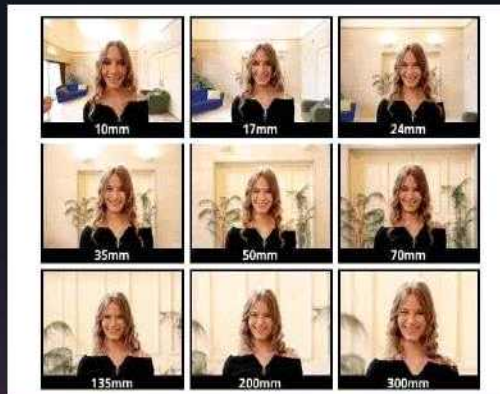
표준렌즈	광각렌즈	망원렌즈
표준렌즈란 사람의 눈과 비슷한 화각 46도의 화각을 가진 렌즈를 말한다. 일반적으로 렌즈의 화각이 45도에서 50도 사이의 렌즈를 표준렌즈라 한다.	광각렌즈는 표준렌즈에 비해 초점거리가 짧고 화각이 넓으며 넓은 범위의 촬영이 가능하다.	망원렌즈는 표준렌즈에 비해 초점거리가 긴렌즈를 말하며 멀리 있는 피사체를 크게 촬영할 수 있다.
사람의 원근감과 유사	왜곡된 원근감 표현	원근감을 축소시킨다.

9

렌즈와 원근법

원근감

초점거리가 짧을수록 배경에서 원근감이 있어 보이고, 초점거리가 길수록 배경이 피사체에 더 가까워 보이게 된다.



10

렌즈의 원근법



11

렌즈의 원근법

· 광각렌즈와 공간의 확장

표준렌즈보다 화각이 넓어질수록 깊이에 대한 인식이 과장되기 때문에 피사체는 실제의 위치 보다 멀리 있는 것 과 같이 보인다.



12

렌즈의 원근법

· 광각렌즈와 공간의 확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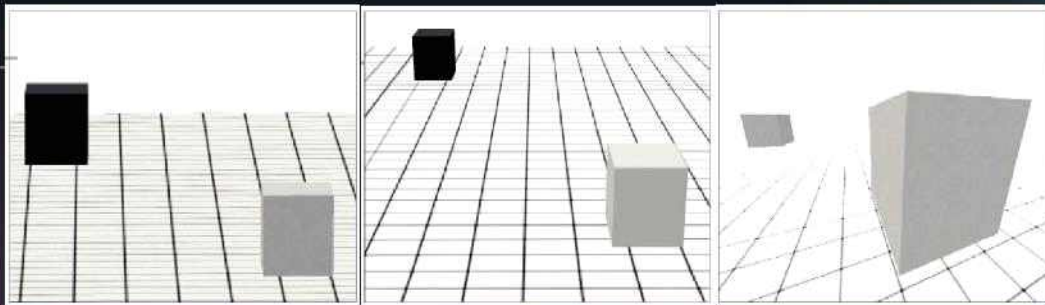
- 1) 광각렌즈는 렌즈로부터 멀어지거나 가까워지는 움직임의 크기와 속도가 더 크게 느껴지고 공간은 확장되어 멀리 있는 피사체는 실제 보다 더 작게 보인다.
- 2) 광각렌즈의 특성은 단초점 렌즈일 수록 피사체는 왜곡되어 보이고 렌즈에 가까이 있는 피사체일수록 왜곡의 정도는 더욱 심해진다.



13

렌즈의 원근법

- 렌즈에 따른 공간의 확장



14

렌즈의 원근법

- 딥포커스 (Deep focus)

- ✓ 스토리텔링 구도로서 딥포커스기법은 광각렌즈를 이용, 초점을 화면구도의 중앙에 맞추어 전경과 후경 모두를 선명하게 찍는 촬영기법이다.
- ✓ 기존의 화면구성이 감독의 의도대로 관객의 시선을 이끌어가는 형식이었다면 딥포커스 구도에서는 관객이 스스로의 이끌림에 따라 시선을 옮겨간다.
- ✓ 카메라 기술에 의한 화면조작과 사실주의적 화면간의 차별성이 드러나는 부분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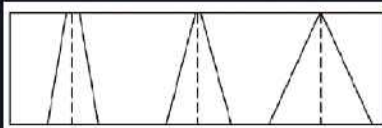


15

렌즈의 원근법

- 공간의 압축

망원렌즈는 공간의 깊이를 압축시키고 피사체가 카메라로부터 가까워지거나 멀어지는 움직임의 속도를 감소시킨다. 공간의 압축 효과는 공간의 심리적 효과 표현에서 다양하게 활용된다.



16

렌즈의 원근법

- 원근법에 대한조각

렌즈의 특성을 활용하여 사물의 크기를 조절하여 장면의 무드를 변화 시킬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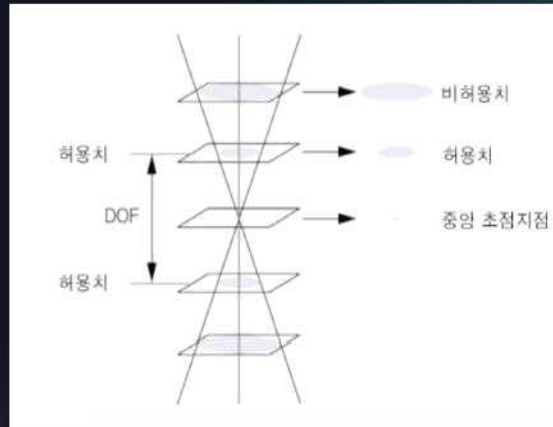
17

렌즈의 피사계심도

• 피사계 심도

- 피사계심도(Depth of field)는 피사체 영역에서 초점이 맞는 범위이다.

- 피사계심도는 초점거리와 촬영거리 그리고 조리개의 개방정도에 따라 변화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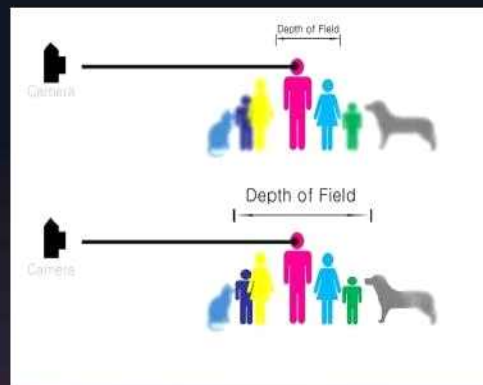


18

렌즈의 피사계심도

- 피사계심도는 초점이 맞는 범위를 의미한다.

- 포커스 링을 조절해서 피사체 한 부분에 초점을 맞추면 초점을 맞춘 지점 앞뒤로 초점이 맞는 범위가 생기는데, 이를 피사계 심도라고 한다.



19

렌즈의 피사계심도

- 피사계심도의 영향을 주는 요소

피사계심도

- 렌즈의 초점거리
- 조리개
- 피사체까지 거리
- 이미지센서 사이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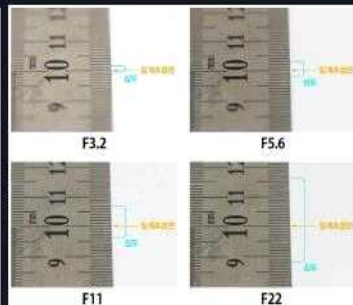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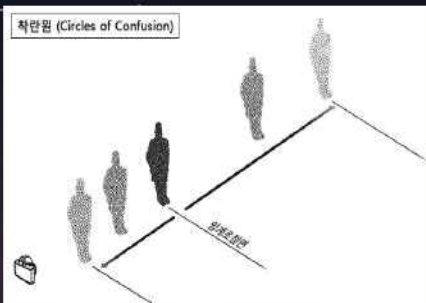
20

렌즈의 피사계심도

* 임계초점면(The Plane of Critical Focus)

: 이론적으로 렌즈의 초점은 하나의 평면에만 존재한다.

즉 하나의 평면(점)에 초점을 맞출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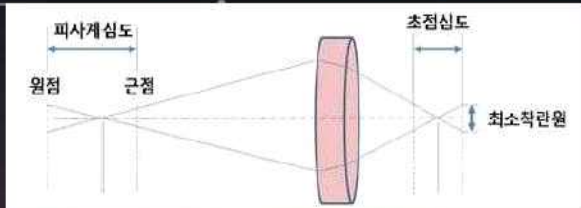


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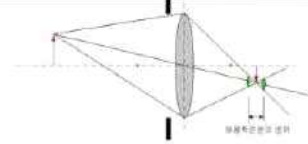
렌즈의 피사계심도

* 착란원 (circles of confus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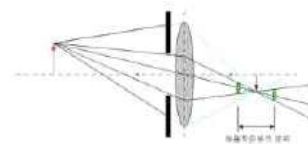
인간의 눈, 필름, CCD등은 이 착란원의 크기가 충분히 작으면 점으로 인식하게 된다.
 정확하게는 착란원의 크기가 일정 크기 보다 작다면 그 차이를 감지하지 못하게 된다.
 필름이라면 필름면의 화학적 입자크기, 이미지센서라면 CCD나CMOS 센서의 크기,
 인간의 눈이라면 시신경의 크기가 감지할 수 있는 최소 착란원의 크기가 될 것이다.



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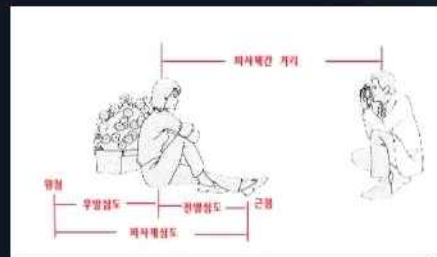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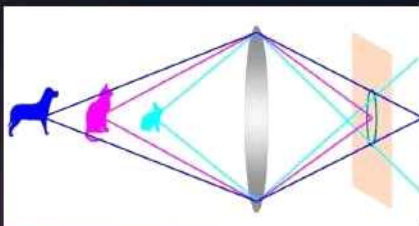
[그림1] 조리개 최대 개방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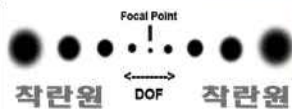
[그림2] 조리개를 조인 경우

렌즈의 피사계심도

- 착란원이란 초점이 맞지 않은 곳에서 입사한 빛이 필름에 점이 되지 않고 원이 되는 것
- 조리개 크기에 따라 피사계 심도가 달라짐
- 영상은 3D 입체 공간을 2D 평면공간으로 옮기는 것이고 그 과정에서 거리에 따라 아웃포커스가 생긴다.
- 착란원이 점에 가까울 수록 초점이 맞는 것처럼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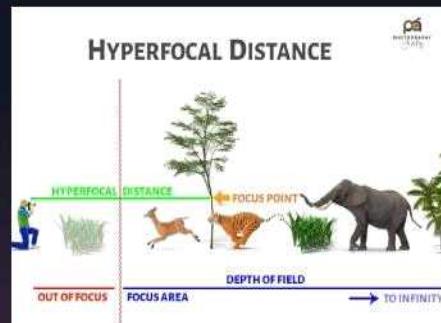
23



렌즈의 피사계심도

* 과초점 거리(Hyperfocal distance)

렌즈가 피사체에 초점을 맞출 때 그 지점을 중심으로 전방에서 후방까지 일정한 거리가 심도의 범위 안에 있어 초점이 맞게 되는데 이때 피사계 심도가 무한대까지 초점이 맞는 거리를 과초점 거리라고 한다. 과초점 거리에 초점을 맞추면 과초점 거리의 약 1/2 위치에서부터 무한대까지 초점이 맞는데 이것을 응용한 것이 고정 초점 카메라이다.



24

4. 결론

카메라를 통한 시선은 다양한 시각적 변화를 체험하게 한다. 배우는 렌즈를 통한 영상언어를 이해할 때 표현하는 감정과 동작 등에서 섬세하고 디테일한 연기스타일을 구축할 수 있다. 카메라를 통한 다양한 실험과 이에 대한 표현은 배우연기의 확장성을 가지게 할 것이다.

25

질의문 I

이 영 란

전 경희대학교 예술디자인대학 연극영화학과 교수

카메라렌즈의 특성을 고려한 배우 동선연구- 윤장호 (대진대 교수)

렌즈의 고도, 렌즈의 언크법, 렌즈의 피사계 심도 등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통해 카메라의 생리, 그 역할과 기능을 알게 되었습니다.

무대에서 시작하여 영화, TV 드라마, 케이블 TV에서 배우, MC, Reporter 등으로 활동해 오고 있는 제 입장에서 현장에서 느낀 부분들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케이블 뿐만 아니라 다양한 플랫폼을 겨냥한 색다른 포맷의 드라마등 다양한 영상물이 많이 제작되는 요즘, 영화현장 뿐만 아니라 그 외 다양한 영상 작업 현장에 쓰이는 카메라의 종류, 개수, 그리고 그 기능이 궁금합니다.

1. 영화와 TV 드라마의 경우 쓰이는 카메라의 종류가 다른 것이지요?
2. 야외 로케이션과 실내 스튜디오 촬영의 경우 카메라가 바뀌는지요? 그에 따라 배우가 유의해야 할 점은 무엇일까요?
3. 쓰이는 카메라의 개수는 어떤 요인에 근거하는가요? 보통 예를 들면 TV 일일드라마 스튜디오 촬영의 경우, 카메라 원, 투, 쓰리 가 기본으로 세팅되어 있는데, 이런 경우와 스튜디오 또는 영화 세트장에서 이동하며 찍는 카메라의 경우는 무엇이 다른 것인가요?
4. 연출과 촬영감독과의 관계에서, 카메라의 앵글, 사이즈, 타이밍등은 어떻게 디자인되고 결정되는지요?
5. 촬영 스튜디오 내에 흔히 원, 투, 쓰리 세팅되어 있는 세개의 카메라 중 불이 들어오는 카메라가 현재 찍고 있는 카메라 인데, 배우는 항상 그 카메라를 향하여 몸을 돌려 연기해야 하는지요? 이런 경우는 MC, Reporter 의 경우에도 해당되는데, 의도적으로 배우의 옆모습을 잡고 싶을 때가 분명히 있을 경우에도 특별한 지시가 없어서 당혹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6. 배우는 항상 카메라가 세팅되어 있는 위치를 파악하고 그 각도에서 벗어나지 않으려 본능적으로 애쓰게 되는데, 예를 들어 똑바로 누워있어야 함에도 한쪽 카메라를 의식하여 고개를 카메라를 향하여 살짝이라도 돌리고 누워있는 경우, 또는, 몸이 상대방을 향하고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카메라 쪽으로 부자연스럽게 틀어져 있는 경우가 많은데, 이부분에 대한 의견은 어떠신지요?
7. 배우가 거의 전신이 개입되는 큰 동작을 할 경우, 롱 샷일 경우와 바스트나 클로즈업 샷일 경우에 배우의 동작에 특별한 지시를 내리는 경우가 있는지요? 예를 들면, 같은 동작이어도 롱 샷일 땐 크게 하고, 클로즈업 샷일 땐 다 보이기 위하여 축소 시켜서 그 동작을 하게 한다든지 하는 경우가 있는지요?

감독의 관점에서 본 촬영기법과 배우, 그리고 연기

구 상 범
한국영상대학교

발제문

1. 연구 목적

과학 기술과 인터넷의 급진적 발달에 따라 영화와 방송 이외에 OTT 영화, 웹드라마, 유튜브 영상 등 다양한 매체에서 다양하고 많은 영상이 만들어지고 있다. 또한, 연기 전공 학생들과 연기자의 영상 연기에 대한 욕구가 커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현실에서 연기자가 제일 중요하게 소통하는 감독(연출자)의 관점에서 본 촬영기법과 배우와 연기를 이해할 필요성을 절감하고 발제를 하고자 한다.

이 연구는 감독의 관점에서 본 촬영기법과 미장센과 연기의 연출 사례를 실제로 분석한다. 또한, 촬영기법과 배우와 연기에 대한 감독의 설문 조사를 통해 연기자가 감독의 업무와 의도와 영상 제작 작업을 이해한다. 이를 통해 연기자가 영상 연기 능력을 향상하는 데 조금이나마 일조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감독의 관점에서 본 촬영기법과 배우와 연기와 연출 사례를 연구하고자 한다.

2. 감독의 관점에서 본 촬영기법

감독은 촬영을 준비하는 사전제작과정과 촬영하는 제작과정과 촬영된 영상을 편집하고 믹싱하고 색 보정 등 후반 제작을 통솔하여 연출 의도에 맞게 영화(영상)를 완성한다.

1) 해설자로서의 카메라

실질적인 이야기 전달자는 감독이지만, 감독이 이야기 전달을 위해 이용하는 목소리는 '카메라'이다. 영화(영상)의 촬영기법은 단지 인물을 촬영하거나 화면을 단순히 표현하는 것이 아니다. 영화에서 카메라를 이용한 촬영기법은 영화의 주제를 표현하는 하나의 방법이다. 카메라의 특정한 방법으로서의 활용은 영상 언어와 문법을 활용하는 방법이다. 영화의 촬영은 단순한 행위와 사실, 장면을 캡처하는 것이 아니라 영화의 문맥을 다르게 만들고 감정과 느낌 때론 전체적인 서사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¹⁾

2) 카메라의 가변 요소 5가지

카메라에는 5가지 가변 요소인 이미지의 크기, 앵글, 카메라의 움직임, 렌즈, 셔터 스피드가 있다.

(1) 이미지의 크기

영상 촬영기법은 이미지의 크기(카메라와 피사체와의 거리)에 따라 멀리 찍기(LS-Long Shot), 중간 찍기(MS-Medium Shot), 가까이 찍기(CU-Close Up Shot), 아주 멀리 찍기(ELS-Extreme Long Shot), 아주 가까이 찍기(ECU-Extreme Close Up Shot) 등으로 나눌 수 있다.

(2) 앵글 (카메라와 피사체와의 각도)

영상 촬영기법은 앵글에 따라 눈높이 샷 (Eye Level Shot), 부감 샷(High Angle Shot), 양각 샷(low angle Shot), 더치 앵글 샷 (Dutch angle Shot), 버드 뷰 샷 (bird's view Shot) 등으로 나눌 수 있다.

(3) 카메라 움직임

영상 촬영기법은 카메라 움직임에 따라 고정 샷(Fix Shot), 패닝 샷(Panning Shot), 틸트 샷 (tilt Shot), 달리 샷(Dolly Shot), 스테디 캠 샷, 들고 찍기 등으로 나눌 수 있다.

(4) 렌즈

영상 촬영기법은 렌즈에 따라 표준렌즈, 광각 렌즈, 망원렌즈로 나눌 수 있다.

(5) 셔터 스피드

영상 촬영기법은 셔터가 열리고 닫히는 속도에 따라 정속 스피드, 저속 스피드, 고속 스피드로 나눌 수 있다.

감독은 이러한 카메라의 5가지 가변 요소의 선택을 통해 실질적인 이야기와 배우의 감정을 전달한다. 감독은 촬영기법의 변화 가능한 요소들을 조합, 조직해 이야기를 영상 언어로 전달한다.

3) 미장센

‘미장센(Mise-en-scen'e)’이라는 용어는 원래는 ‘장면의 무대화’ 또는 ‘소도구를 배치하다’라는 뜻의 연극 용어이던 것이 전후의 프랑스 평론가들이 비평 용어로서, 그리고 누벨바그의 감독들이 영화 미학적으로 실천함으로써 일반화되었다. 영화 형식의 구성 요소인 미장센(Mise-en-scen'e)은 영화의 주된 표현 양식으로 프레임 내 다양한 시각적 표현 요소를 연출하는 것을 뜻한다.²⁾

미장센의 구성 요소는 프레임에 배치된 공간, 색상, 소도구뿐만 아니라 영화 매체의 특수성으로 인해 생기는 카메라의 움직임, 촬영기법, 프레임, 구도, 동선 그리고 특수효과까지 모두 포함하게 되었다.³⁾

이러한 화면구성을 살리기 위해 미장센을 중요시하는 편집은 편집을 통해 새로운 의미를 만드는 몽타주 편집법과 달리 길게 찍기(Long Take)와 딥 포커스(Deep Focus)⁴⁾를 통해 편집의 리듬과 템포를 만든다.

(1) 봉준호 감독 <기생충(2019)> 미장센 분석



<기생충(2019) 그림1>

봉준호 감독은 <기생충(2019) 그림1> 장면에서 기우네 가족 세 사람의 인물 동선을 통해 중앙에 있는 피자 가게 사장을 압박하는 상황을 시각적으로 보여준다. 또한, 전경을 초점을 맞추고 중경과 원경을 초점을 흐리게 함으로써 전경에 집중하게 한다. 네 사람 너머 중경의

2) B. G. Choi, A Study on the Creative Function of Mise-en-scene Elements, Film research, Vol. 29, pp. 347-374, 2006

3) S. K. Lee Visual text of the stage of the play, read in movie language 'Mise-en-scene', Performance and Theory, Vol 34, pp.134, 2009

4) 전경, 중간 지점, 배경이 모두 초점(포커스)에 위치함

피자 배달차와 피자 직원을 보여줌으로써, 네 사람이 피자 배달 아르바이트생에 대해 이야기를 하는 것을 미장센으로 보여준다.

(2) 고레에다 히로카즈 감독 <어느 가족(2018)> 미장센 분석



<어느 가족(2018) 그림1>

<어느 가족(2018) 그림2>

고레에다 히로카즈 감독은 <어느 가족(2018) 그림1> 장면에서 가족과 사회로부터 소외되고 억압된 소녀의 답답한 현실을 혼자 작은 모습으로 놀고 있는 소녀의 모습과 소녀를 둘러싼 담벼락과 창틀과 어두운 그림자와 쓰레기더미 같이 버려진 소녀의 장난감들의 미장센으로 표현하고 있다. <어느 가족(2018) 그림1> 의 딥포커스는 사실감을 보여주며 저 멀리 지붕 위의 햇빛에 눈이 녹고 있는 모습은 계절의 변화와 일말의 희망을 보여주고 있다. <어느 가족(2018) 그림2> 에서 누군가를 발견하고 반갑게 놀라는 소녀의 표정에서 영화는 열린 결말로 끝난다.

(3) 구상범 감독 단편영화 <아리(2017)> 미장센 분석



<아리(2017) 그림1>

구상범 감독은 <아리(2017) 그림1> 장면에서 8살 나라를 부둥켜안고 우는 나라 엄마와 햇빛에 반사되는 냇가의 미장센을 통해 희망을 표현하고자 하였다.

4) 촬영기법에 대한 감독의 설문 조사

(1) 감독 관점에서 본 촬영기법이란?

답변사례 1. “이야기의 장르나 인물의 감정에 따라 화면 크기가 결정된다. 진지한 드라마 같

은 경우는 클로즈업, 코미디 같은 경우는 미디엄 샷에서 풀 샷 위주로, 이야기를 객관적으로 바라볼 때도 미디엄 샷과 풀 샷을 많이 쓴다. 인물의 감정을 따라갈 때는 클로즈업을 쓴다.”

답변사례 2. “감독이 가고자 하는 방향을 잘 드러내 줄 수 있는 촬영기법으로 촬영을 한다. 예를 들면, 주인공에게 관객들이 감정이입 하면서 봐야 하는 영화라면 그에 맞는 촬영기법으로 찍어야 하고, 반대로 주인공과 영화 속 인물들에게 거리를 두고 보게 되는 영화라면 역시나 그에 맞는 촬영기법으로 찍어야 한다.”

이렇듯, 감독은 촬영기법과 미장센을 통해 이야기와 캐릭터의 심리와 감정 등을 표현한다.

3. 배우와 연기

대본을 영상으로 바꾼다는 것은 대본을 연기자의 연기를 통해서 그림으로 나타내는 것을 뜻한다. 연출자의 역할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것이 연기자의 연기를 이끄는 일이다. 연기를 가르치는 것이 아니고 연기를 다른 제작 요소들과 어울리도록 이끄는 일이다. 연기자가 생각하는 등장인물 성격, 관계, 동기 등이 연출자와 다를 수 있다. 이를 충분히 토론했어서 의견을 모을 필요가 있다. 연출자는 장면마다 연기자에게 장면의 상황과 그 상황에 필요한 연기를 연기자에게 주문함으로써, 그 장면의 상황에 어울리는 연기를 끌어낼 수 있다. 5)

1) 이명세 감독 <형사 Duelist(2005)> 연기 분석



<형사Duelist(2005) 그림1> <형사Duelist(2005) 그림2>

이명세 감독 <형사 Duelist(2005)> 돌담길 장면에서 여형사 남순(하지원 역)과 남순의 뒤를 쫓는 슬픈 눈(강동원 역)은 돌담길에서 칼싸움을 한다. 두 사람의 칼싸움은 <형사 Duelist(2005) 그림1>의 어둠 속에서 번쩍이는 칼에 비친 불빛과 <형사Duelist(2005) 그림2>의 춤을 추는 듯한 인물 동선과 스톱 모션 기법 촬영 등으로 마치 두 사람이 사랑을 나누는 듯이 표현된다. 이명세 감독은 표현주의적인 연기를 통해 돌담길 씬을 연출하고 있다.

5) 정형기, 방송프로그램, 내하출판사, 35~36p

2) 이창동 감독 <밀양(2007)> 연기 분석



< 밀양(2007) 그림1>

이창동 감독 <밀양(2007)> 에서 신애(전도연 역)는 어린 아들의 사망 신고를 하러 주민센터에 가서 주민등록증을 찾다가 물건을 떨어트린다. < 밀양(2007) 그림1>에서 신애는 도와주려는 사람에게 화를 낸다. 이창동 감독은 신애와 주민센터 인물들의 사실주의적 연기를 통해 주민센터 장면을 사실적으로 연출하고 있다.

3) 구상범 감독 단편영화 <와우보이(2021)> 연기 분석



<와우보이(2021) 그림1>

구상범 감독은 <와우보이(2021) 그림1> 장면에서 난청인 '시온' 역을 실제 난청인 이예준 군의 캐스팅과 연기지도를 통해 사실적인 연기를 연출하였다.

이렇듯, 감독의 연출 스타일에 따라서 연기자의 연기는 달라진다고 할 수 있다.

4. 배우와 연기에 대한 감독의 설문 조사

1) 감독의 관점에서 본 배우란?

답변사례 1. “배우는 이야기의 전달자이다. 기본적으로 이야기가 표현하고자 하는 대사나 감

정을 정확하게 표현하는 배우가 좋은 배우라고 생각한다. 이미지가 좋아도 발성이 안 좋거나 시나리오상의 감정, 뉘앙스를 제대로 해석하고 전달하지 못하는 배우는 같이 작업하고도 나중에 캐스팅을 후회하게 된 경우가 있다.”

답변사례 2. “배우는 이야기를 끌고 나가는 화자이다. 감독이 인물을 통해서 보여주고자 하는 메시지를 담고 있는 화자이다. 배우는 감독이 관객들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것을 표현해주는 영화의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요소이다.”

2) 감독 관점에서 캐스팅하고 싶은 배우는?

답변사례 1. “배우는 연기자이기 이전에 사람이다. 코드가 맞고 좋은 기운을 주는 사람과 작업하고 싶다. 그리고 영화는 또 무엇보다 재미있어야 한다. 재미있는 사람이 재미있는 연기와 볼거리를 준다고 생각해서, 너무 진지한 배우보다 재미있는 배우를 선호한다.”

답변사례 2. “남자 배우 A: 여자들이 좋아하는 이상형의 외모를 지니고 있고 어떤 역할도 어울릴 것 같은 배우이다. 여자배우 B: 어떤 역할을 맡아도 호감도 있는 인물로 연기를 할 수 있는 배우라고 생각이 든다. 남자 배우 C: 나이가 들어서도 매력 있는 배우이고 개인적인 호감도가 있다.”

3) 감독 관점에서 본 좋은 배우는?

답변사례 1. “배우의 기본인 전달력, 발성과 표현력이 좋은 배우를 선호한다. 극장에서 영화를 볼 때 대사가 안 들리는 배우는 후반 작업 기술의 문제도 있겠지만, 배우 자체의 문제도 있다고 보기 때문에 선호하지 않게 된다. 같이 작업한 배우는 아니지만, 손석구 같은 배우는 발성을 설렁설렁하는 것 같은데도 대사가 매우 잘 들린다고 느껴져서 같이 작업해보고 싶은 배우이다. 똑같은 시나리오를 보고도 편하지 않게 해석해서 연기하는 배우도 좋은 배우라고 생각한다.”

답변사례 2. “좋은 배우는 시나리오 속 인물을 자신과 잘 합체시킬 수 있는 배우이다.”

4) 감독 관점에서 본 연기란?

답변사례 1. “영화는 결국 사람의 감정을 보여주는 예술이고, 연기는 그 감정을 해석해서 표현하는 방식이다. 사람의 보편적인 감정을 잘 이해해야만 좋은 연기가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한

다. 배우가 평소에는 그렇게 행동하지 않는데, 연기니까 꾸며서 역지로 감정을 표현하면 설득력이 없는 가짜연기라고 생각한다. 자신이 충분히 이해하고 자신 안에 있는 감정, 경험이 연기로 나와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많은 경험을 하고 다양한 감정을 이해하는 배우가 좋은 연기를 한다고 생각한다.”

답변사례 2. “연기란 시나리오 속 인물을 배우가 자기화하는 것이다.”

5) 감독 관점에서 본 연기지도란?

답변사례 1. “연기지도란 말은 맞지 않다고 본다. 단, 배우가 자기도 모르게 하는 버릇 습관 같은 것은 같이 얘기해서 수정하는 편이다. 예를 들어 배우가 대사하면서 시선을 옆으로 슬쩍 슬쩍 피한다거나, 눈을 자주 깜빡인다거나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는 모니터링을 통해 정정하는 편이다. 배우가 연기할 때 시선을 상대방 인물에서 피하는 경우 관객의 집중도도 흐트러지기 때문에 대화 장면에서 되도록 상대방의 눈을 계속 보면서 연기를 하게 시키는 편이다.”

답변사례 2. “연기지도란 배우가 캐릭터를 제대로 잘 연기할 수 있도록 안내해주는 것이다.”

6) 감독 관점에서 본 좋은 연기란?

답변사례 1. “좋은 연기는 뻔하지 않으면서도 공감이가는 연기이다. 영화 “속물들(2019)“에서 유재명 배우가 속물적인 미술계 인물로 나오는데, 그 연기를 뻔한 속물처럼 하지 않고 아주 점잖은 연기로 보여주는 장면을 보고 현장에서 매우 감탄한 적이 있다. 좋은 연기란 관객의 예상을 기분 좋게 깨면서도 고개를 끄덕이게 만드는 공감을 불러일으키는 연기라고 생각한다.”

답변사례 2. “좋은 연기란 감독이 표현하고자 하는 캐릭터의 특성을 잘 파악하고 자기화해서 표현하는 것이다. 간혹 시나리오 속 인물을 배우가 감독의 의도와 상관없이 연기하는 경우가 있다고 들었는데 개인적으로 그런 배우는 감독 입장에서 매우 유감스럽고 함께 일하고 싶지 않은 배우이다.”

5. 결론

감독(연출)의 관점에서의 촬영기법과 실제적인 미장센 분석과 연기 분석, 그리고 촬영기법과 배우와 연기를 바라보고 대하는 감독의 설문 사례들을 알아보았다. 이를 통해 연기자가

감독의 업무와 의도와 영화(영상) 제작을 이해함으로써, 연기자가 감독과의 소통이 원활하고 감독의 의도를 잘 파악하여 영상 연기를 잘하는데 조금이나마 일조했으면 하는 바램이다.

참고문헌.

- 웨연, 고레에다 히로카즈 감독 영화의 촬영기법, 커뮤니케이션 디자인학 연구 제 76호 (2021.07.31.)
- B. G. Choi, A Study on the Creative Function of Mise-en-scene Elements, Film research, Vol. 29, pp. 347-374, 2006
- S. K. Lee Visual text of the stage of the play, read in movie language 'Mise-en-scene', Performance and Theory, Vol 34, pp. 134, 2009
- 정형기, 방송프로그램 연출, 내하출판사

질의문

김윤식 (YOUN-SIK, KIM)

동서울대학교 교수

감독의 관점에서 본 촬영 기법과 배우, 그리고 연기 - 구상범(한국영상대학교 교수)

1. 주요 발표내용

발표문은 영화 제작과정에서 감독이 자신의 의도(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하여 선택하는 촬영 기법(카메라의 가변요소)과 이를 적용하여 연출된 장면에 대한 미장센 분석을 통해 감독의 관점에서 본 촬영 기법을 이해할 수 있었고, 감독들이 정의하는 또는 선호하는 '배우'와 '연기'에 관한 생각들을 설문 사례를 통해 알 수 있었습니다.

2. 질문

감독이 선택한 촬영 기법-샷의 크기는 이야기의 장르나 인물의 감정선에 따라 촬영, 감독이 선택한 장면의 의도(몰입과 거리두기)에 따른 촬영-에 따라 배우의 연기가 어떻게 달라져야 하는지 대한 구체적인 예시를 듣고 싶습니다.

질문1.

감독이 선택한 샷의 크기와 앵글, 카메라 움직임, 렌즈의 차이에 따라 배우의 연기(화술, 표정이나 움직임 등)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달라져야 하나요?

질문2.

감독의 선택에 따라 주인공에게 관객들이 감정이입을 해야 하는 영화(장면)와 거리두기를 해야 하는 영화(장면)에서 카메라 앞 배우의 연기 표현방식은 서로 어떤 차이가 있나요?

배우와 연기에 대한 감독들의 설문을 통한 사례조사 중 배우에게 가장 중요하게 요구되는 것이 '이야기의 전달자로서 대사나 감정을 정확하게 표현해야 하는 것'이라는 의견에 관한 발표자의 생각과 발표문 내용 외 최근 도입되는 LED 스튜디오 촬영에서 배우에게 새롭게 요구되는 것들이 무엇인 듣고 싶습니다.

질문3.

배우에게 좋은 발성과 정확한 발음이란 구체적으로 무엇이며, 이것이 배우가 표현해야 하는 톤 앤 매너(어조나 말투, 태도나 방식 - 컨셉과 분위기)보다 우선한다고 생각하시나요?

질문4.

실시간 크로마키 영상, 버추얼 스튜디오에서의 프로덕션, LED가 설치된 XR 스테이지 등에서 새롭게 요구되는 배우의 연기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